

소철지옥의 재현과 오키나와 협동조합 및 지역운동의 대응*

조경식**
happyset80@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생협운동의 대응 |
| 2. 문학 작품 속 소철지옥(ソテツ地獄) 문제 | 3.2 반(班)조직 활동과 지역운동 |
| 3. 새로운 소철지옥과 지역운동 | 4. 마치며 |

主題語: 오키나와(Okinawa), 소철지옥(Sotetsu Hell), 떠도는 류큐인(Samayoeru ryuukyujin), 히로쓰 가즈오(Hirotsu Kazuo), 생활협동조합(Cooperative)

1. 들어가며

전후, 1951년에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조차(租借)의 형식으로 미국이 오키나와를 합법적으로 지배하게 함으로써 군용지 및 기지 확장 등, 안정적인 기지 사용을 위한 미군의 압력은 강화되어갔다. 실제로 오키나와 시민에 대한 미군정의 일방적인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¹⁾ 등의 조치로 인해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을 비롯한 ‘본토 복귀 운동’ 등 다양한 지역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오키나와 시민의 요구와는 달리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그대로 둔 채,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키나와 내의 지역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지속되는데, 다양한 지역운동 중 본문에서 다룰 협동조합운동의 결과물로서 ‘오키나와 의료협동조합’이 오키나와 반환의 해에 출범한 것은 이런 지역운동의 연속성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지역운동의 흐름은 일찍이 지역을 덮친 바 있었던 ‘소철지옥(ソテツ地獄)²⁾’의

* 이 연구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전쟁 시기 미군의 군용지로 이용된 토지에 대해 주민들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고, 낮은 사용료를 책정하여 실시한 토지 접수 정책

2) 1920~30년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주요 생산물인 설탕 가격이 폭락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 식민지 원주민과 같은 위계로 대상화되어 ‘소철지옥’을 경험했던 오키나와인들에게 ‘본토 복귀’의 결과물은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을 예감하게 하였을 것이다. 오키나와인들이 겪었던 ‘소철지옥’의 경험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 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1970년에 복각된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さまよへる琉球人)』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키나와 출신 작가인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역시 본토 반환을 앞둔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 복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었던³⁾ 『떠도는 류큐인』은 1926년에 발표되어 당시의 오키나와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었다.

소위 ‘소철지옥’이라고 불렸던 시기를 배경으로 작품 속의 ‘류큐인’ 미카에루 다미요(見返民世)는 ‘내지인’ 주인공 H를 상대로 사기를 일삼는데, 이 내용을 문제 삼았던 단체의 항의와 이에 대한 작가의 결정으로 발표된 해에 지면에서 철회된 상태였다.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1970년에 이르러 약 40여년만에 이루어진 작품의 복각은 ‘소철지옥’을 둘러싼 작품 속 상황을 통해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관계를 다시금 성찰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1926년에 발표된 구시 후사코(久志富佐子)의 소설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가 묘사한 오키나와의 모습에서도 ‘소철지옥’ 시기 원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결국 오키나와현 학생회의 항의를 불러일으켜, 작가의 항의문 게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역으로 ‘소철지옥’ 시기 고단한 삶이 오키나와인들에게 얼마나 깊게 각인되어 있었는지 짐작하게끔 한다.

일찍이 ‘소철지옥’ 시기를 거치며 경험했던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의 기억은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시기에 복각된 상기의 『떠도는 류큐인』과 같은 작품을 통해 다시금 상기되며 당대 시민들의 풀뿌리 조직을 추동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오키나와 반환과 작품의 복각을 둘러싼 당대의 배경과 그 속에서 전개된 지역운동 양상을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학 작품 속 소철지옥(ソテツ地獄) 문제

40여 년 전 본토인들이 생각한 오키나와의 이미지와 수탈 대상으로서 오키나와인들의 사정

흥작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 사람들이 소철(蘇鐵) 식물로 끼니를 연명했던 시기를 소철지옥(ソテツ地獄)이라고 일컫는다.

3) 조정민(2017)『오키나와를 읽다 -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 p.33

은 『떠도는 류큐인』과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 속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특히 『떠도는 류큐인』복각 시점의 미군정-오키나와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작품 속에서 보이는 본토-오키나와간의 유사 식민지적 상황에 대입하여 ‘소철지옥’ 시기의 오키나와를 살펴봄으로써, 반환 이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성찰하는 과정으로서 복각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운동으로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떠도는 류큐인』의 작품 속 배경이 도쿄인 것과 달리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는 오키나와의 도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소철지옥’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S시는 밤이 되면 암흑이야. 여하튼 세금이 비싸서 부자들은 모두 N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더라. 돌담은 아무렇게나 무너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도 대개는 밭으로 변했어. 그제 류큐에서 두 번째 도시라니. 놀랍지 않아?(중략) 게다가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 날이 오키라도 하는 날엔 정말 어떻게 되겠어. 타지에 가서 돈을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잖아!4)

이 부분에는 ‘소철지옥’ 시기의 슬럼화된 도시 정경이 묘사하는 비참함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타지역으로의 노동 목적의 이주와 관련되어있음이 나타나있다. 당시 오키나와인들은 황폐해진 오키나와를 떠나 내지로 돈벌이에 나섰지만, 내지 일본인의 차별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작품 속 인물의 어머니는 오키나와인의 전통인 손등 문신으로 인해 내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당시 오키나와인들이 내지에서 풍속과 습관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저자인 구시 후사코는 일본 내지에서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하며 생활하는 조선인과 대만인 커뮤니티와 비교하며, 오키나와인 즉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오키나와인들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협동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은 본 논문의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오키나와 지역 협동조합운동 형성의 내적 필연성으로 연결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떠도는 류큐인』에서 묘사되는 오키나와 또한 ‘소철지옥’ 시기의 가혹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키나와 출신 미카에루는 도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인 신분으로 주인공 H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오키나와의 사정을 강변한다.

4) 구시 후사코, 곽형덕 역(2017)『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pp.37-38

류큐의 중산계급은 지금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탕수수농 지어도 팔리지 않아요. 아니, 도매상이라 내지의 자본주의가 협력하고 있어서 팔려 봤자 헐값이에요.(중략) 나하(那覇)의 세금이 도쿄보다 몇 갑절이나 비싸다고 하면 놀라시겠지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겁니다.(중략) 류큐의 탄광 생활이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류큐에 있는 것보다 극락으로 보이는 겁니다.⁵⁾

미카에루가 ‘떠도는 류큐인’이 된 것은 ‘소철지옥’으로 인한 오키나와의 경제적 궁핍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식민지였던 타이완과 남양군도의 일본 제당업 자본가들 사이에서 사탕수수 생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1920년을 기준으로 일본 내의 설탕 가격이 폭락하며 ‘오키나와 구제론’ 논의를 일으키는 배경이 형성되었다.

즉 ‘소철지옥’은 제국주의 정책이 불러온 국가적 문제였는데, ‘구제론’들은 오키나와 지역에 한정된 지역적 문제로서 오키나와를 대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⁶⁾ 작품 속에서 보이는 이런 문제적 상황이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반복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이 함의한 바는 분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군정의 ‘토지수용령’을 비롯한 미군범죄 등에 항의하며, 일찍이 오키나와 시민들은 일본으로의 복귀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었지만, 1969년 사토-니슨 회담의 기만적 결과물은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에 불과했다.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오키나와가 반환될 것이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군 시설 확대 및 전술핵 유지를 통해, 오히려 오키나와 시민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고립감을 남겨주었다. 『떠도는 류큐인』에서 묘사되는 ‘소철지옥’ 시기의 오키나와가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 대상화되었던 것처럼, 반환이후 정부는 각종 회유책을 동원하며 오키나와를 일본 내에서 고립시켜왔던 것이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H가 ‘소철지옥’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지 못하고 남기는 다음과 같은 독백은 이와 같은 대상화의 일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 왔으니 다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지인에게 도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반항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리도 아니기는 하겠군. (중략) 실제로 오랫동안

5)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2017)『떠도는 류큐인』『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p.91

6) ‘오키나와 구제론’으로서 1925년부터 제국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이 결의되지만 “식민지와 비슷하게 명명된 구제 대상으로서의 오키나와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명명되거나 내세워질 때마다 영토획득의 폭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예감시키게”되며, “구제의 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이는 것은 식민지와 국내의 어느 곳도 아닌 공백으로서의 오키나와가 식민지나 국내에 유사(擬似)적으로 동일화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식민지도 국내도 아니면서 그 둘 모두이기도 하다”(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2009)『폭력의 예감』, pp.331-336)

박해를 받다 보면 박해자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 이야기도 아니다. (중략) 만일 내가 이렇게 압박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 역시 압박자에게 신의나 도덕을 지킬 마음은 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⁷⁾

위의 독백을 비롯한 몇몇 장면으로 작가는 공식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작품이 발표된 같은 해에 전면적인 철회가 이어지게 된다. 오키나와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작가의 선의와는 별개로 ‘소철지옥’ 문제의 근본적 성찰에는 이르지 못한 채 작품은 철회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동시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구제론 논의의 한계를 작품을 통해 대신 드러내 주었다는 평가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당시 ‘소철지옥’의 지속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입안한 ‘오키나와현 진흥계획안’ 또한 타이완과 같은 ‘식민지 행정의 장점’을 접목한 논의로 이어지며,⁸⁾ 식민지도 자국도 아닌 구제의 대상으로 오키나와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작품 속에서도 확인되는 ‘소철지옥’ 당시의 이런 역학관계는 이후, 복각 전후의 미군정-오키나와, 본토-오키나와의 관계를 연상시키는데, 군이 반환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이 함의하는 바는 분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철지옥’ 시기를 거쳤던 오키나와 시민들은 일본이라는 울타리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경험을 이미 체득한 바 있었고, 시민들의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던 일본으로의 반환과정 속에서 작품의 복각을 통해 되새기고 한 바는 명확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소철지옥’을 예상하며 시민들이 풀뿌리 조직을 통해 지역운동을 전개해 간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소철지옥과 지역운동

3.1 생협운동의 대응

오키나와 지역운동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생협운동의 시작과 일본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협 이전 최초의 협동조합은 산업사회가 정착되어 간 19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혼란에 대응하여 나타났는데, 특히 1844년 영국 로치데일(Rochdale)의 소비자협동조합⁹⁾ 방식의 운동을 근대적

7) 히로쓰 가즈오, 앞의 책, pp.99-100

8)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229

협동조합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은 곧 서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방어적 형태로 협동사회 및 공정사회 건설의 지향을 띄게 된다. 소비자협동조합 또는 생협으로 불린 조합운동은 유럽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2차 대전 후, 주요 국가들에서 천만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1950년대 말에 이미 1300만 명의 조합원이 1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¹⁰⁾

1960년대 이후 유럽의 생협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당대에 제기된 반전·반핵, 반인종차별, 여성해방, 환경보존, 탈권위, 탈물질주의 등의 사상 및 사조가 폭발하며 생협운동은 시민운동의 형태로 진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다음 장의 ‘반(班)조직’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생협이 가진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직구조는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사회운동과의 결합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최초 생협의 형태는 1879년에 도쿄와 오사카에 설립된 공립상사(共立商社)를 기원으로 보는데,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사회 상층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전근대적인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없어 ‘협력상점’으로 소개될 정도로 노동자의 결사체가 부재하였기에 결국 단명하게 된다.¹¹⁾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호황과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비롯된 활발한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형 생협이 주요 도시에 설립되며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조합운동이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후 1927년 일본 전국의 시민형 생협은 106개 조합, 75,000명의 조합원 수에 구매사업액은 1,100만 엔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지만, 만주사변을 앞둔 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찰의 정치적 탄압과 이어진 전시국가체제로 인해 단위 조합들이 해산되는 암흑기를 거치게 된다.

일본 생협조직의 재건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본격화 되는데, 풀뿌리 ‘반 조직’ 바탕의 생협운동 전개와 1948년 국회의 생협법 제정 및 1951년 일본생협연합회의 창립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은 미국의 작전 보급기지가 되어 있었지만, 일본생협연합회는 창립총회에서 ‘평화와 보다 나은 생활이야말로

9) “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보다 후에 나온 용어로, 소비를 포함한 생활전체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어느 쪽의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활동의 내용은 같다.” (정진성(2001)『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p.260)

10) 정진성, 앞의 책, p.261

11) 사이토 요시아키, 다나카 히로시 역(2012)『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p.18

생활협동조합의 이상이며, 이러한 이상의 관철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¹²⁾이라는 ‘창립선언’과 ‘평화선언’을 통해 생협의 목표를 분명히 밝힌다. 이는 또한 뒤에서 살펴 볼 오키나와의 새로운 소철지옥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의 지향점이기도 하였다. 이후 1955년에서 1975년까지 20년간, 일본생협의 조합원 수는 5.8배, 출자금은 65.3배 증가하는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시민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¹³⁾ 동 시기 본토반환을 앞둔 오키나와에서 역시 이런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키나와를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한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자위대 추가배치 및 미군 시설 확대와 함께 전술핵이 유지 된 채, 1972년에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가적 이벤트는 진행된다. 이는 오키나와 시민들로 하여금 40여 년 전, 이른바 ‘식민지도 일본도 아닌’ 구제대 상으로서의 오키나와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소철지옥’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반환을 앞두고 복각된 『떠도는 류큐인』을 통해 ‘소철지옥’ 시기의 본토-오키나와 관계를 되짚어 볼 때, 반환이 진행된 1972년에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한 ‘오키나와 의료생활협동조합(沖縄医療生活協同組合, 이하 오키나와 의료생협)’이 출범한 것은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희망에 반하는 오키나와 복귀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이 상기시키는 ‘소철지옥’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운동을 그 대안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당시 노동운동이 계급에 기초한 체제변혁적 목적을 가졌던 것과 달리, 생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은 오키나와 시민의 권리 주장에 기반하여 환경·반핵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친화력을 특징으로 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에 오키나와에 있었던 병원 및 진료소의 숫자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에 불과했고, 의사 및 간호사의 숫자는 1/3 이하에 이르며, 각종 질환과 전염병 이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민들은 직접 지역운동을 통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오키나와 반환의 해인 1972년에 마침내 오키나와 의료생협을 설립하는데, 이후 3개의 중대형병원과 6개의 진료소 및 8개의 개호복지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3.2 반(班)조직 활동과 지역운동

오키나와에서 종전 이전에 경험했던 ‘소철지옥’의 경제적 궁핍함과 전후 ‘섬 전체 투쟁’을 통해 체득한 시민들의 조직력은 자연히 지역운동의 풀뿌리 조직 형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12) 사이토 요시아키, 앞의 책, p.43

13) 정진성, 앞의 책, p.266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운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시민들의 ‘반(班)’을 통한 조직활동이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태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반’ 조직은 실거주지 인근의 조합원들이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출발점이었는데, 점차 그 기능과 중요성이 강화되어 갔다.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지닌 서유럽에서도 일본 협동조합 ‘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班(HAN)’은 이제 국제어로 지정 되었는데,¹⁴⁾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그룹별 조합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가장 민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운동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오키나와의 ‘반’ 조직은 무엇보다 1950-60년대 ‘섬 전체 투쟁’ 및 미군정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쟁의를 거치며 풀뿌리 조직으로서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반’으로 조직된 튼튼한 풀뿌리 조직들이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출범을 이루어내는 등, 거시적 사안에 관한 토론과 조직, 참여를 기초부터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낸 성과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조합의 주체가 단순히 조합원이 아닌 ‘생활자’¹⁵⁾로 규정되는 생협운동은 ‘반’을 통해 비로소 오키나와의 생활 전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반 조직을 바탕으로 형성된 협동조합들은 반환이후 70년대에 오키나와를 휩쓸었던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인간적 사회의 확립’이라는 목표와 ‘평화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¹⁶⁾은 당시 오키나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동떨어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으로의 반환이 이루어진 해에 발표된 오키나와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킨(金武)만을 지키는 모임’(金武灣を守る会)에 대한 지역운동 조직의 적극적인 결합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진행된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일본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해 거액의 공공투자 사회자본을 축적 후 이를 통해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액의 공공투자

14) 정진성(2001)『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p.270

15) 요코다 카쓰미(横田克巳)는『대안적 시민사회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생활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활자는 문제해결의 장을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외부의 장(정치나 행정과정)에서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는 의지가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생활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 따른 ‘책임’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주체성을 가진다.”(요코다 카쓰미, 나일경 역(2004)『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p.104)

16) 정진성, 앞의 책, p.271

는 결국 대기업을 통해 본토로 빠져나감으로써, 하청형태의 의존형 건설업 난립 및 토착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난개발에 의한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게 되었다.¹⁷⁾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와 일대를 석유산업 중심의 전략적 공업지대로 완성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석유비축기지 건설이 추진되자 1973년 ‘킨만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특히 이 모임이 오키나와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까지 피라미드형의 거대 조직들이 연합했던 방식과 달리 협동조합 등 자발적 지역운동과의 결합 속에서 주민 개개인으로부터 근거하는 운동체였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인용한 생활협동조합 슬로건에 명시된 ‘인간적 사회’, ‘평화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은 오키나와 반환이후 풀뿌리 조직에서 근거한 더욱 밀착된 형태의 지역운동으로 진화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운동의 활성화로 내부적 조직화와 단결을 이루어갔지만, 반환 이후 오키나와 시민들이 일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험한 고립감은 미군정 시기와 사실상 다를 바 없었음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앞서 언급한 ‘킨만을 지키는 모임’ 외에 미군포격 훈련 사상사건, 미군 민간인 저격 사건 등에 대한 총궐기대회가 천황의 방문(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을 앞두고 잇따르며, 반(反)복귀·반(反)아마토의 감정이 깊어져간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가적 이벤트의 이면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한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발적 지역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삶을 모색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떠도는 류큐인』 및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 등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소철지옥’ 시기 오키나와의 또 다른 형태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떠도는 류큐인』,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속에 나타난 오키나와 ‘소철지옥’ 시기의 양상과 본토반환 이후 새로운 형태로 재현된 ‘소철지옥’에 대응해 간 협동조합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오키나와의 현실을 가감없이 표현했던 상기 문학 작품들은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면에서 내려질 정도로 일본 내지와 오키나와 사이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낸 바 있었다. 반환 2년 전인 1970년이 되어서야 작품이 다시 복각된 일련의 과정은 과거 본토-오키나와 사이의 문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반환 이후를

17)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역(2008)『오키나와 현대사』, pp.89-90

성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찍이 오키나와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었던 사탕수수 사업이 ‘소철지옥’ 시기를 거치며 황폐화된 배경에는 일본의 남양지역 식민지 경영이라는 요인이 큰 영향을 차지했는데, 이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에 취했던 구제정책은 마치 종주국-식민지와 같은 관계설정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결국 황폐화된 오키나와를 떠나 내지와 해외 식민지의 노동자로 흘러들 어간 오키나와인들이 생존을 위해 정체성의 개량을 강요당하며 스스로를 지워갔던 것은 앞에서 『멸망해가는 류큐 여인의 수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작가인 구시 후사코가 작품 속에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소철지옥’을 거치며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한 오키나와인들은 본토로의 복귀가 만들어낼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을 예감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소철지옥’ 시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오키나와인들 앞에 미군정이 들어선 이후, 시민들이 주축이 된 장기간의 ‘섬 전체 투쟁’ 과정은 스스로를 조직해 가는 실천적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었다. 국가적 이벤트로서의 본토 복귀를 ‘소철지옥’의 재현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이라는 울타리의 한계를 일찌감치 경험한 시민들은 ‘섬 전체 투쟁’ 속에서 풀뿌리 지역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 조직’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을 출범시킨다. 특히 일본 전국을 기준으로 당시 극도로 열악했던 오키나와의 의료보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해낸 ‘오키나와 의료생협’의 경우는 현재까지 높은 성장과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키나와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미군문제에 대응해온 지역 운동 동력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협동조합 및 제조직을 통해 발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철지옥’ 시기를 거치며 ‘일본도 식민지도 아닌’ 구제의 지역으로 대상화되었던 오키나와 시민들은, 본토 반환을 통해 예고된 새로운 ‘소철지옥’을 앞두고 자주적 협동조합참여 및 지역 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해 간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본토 반환 이후에도 오키나와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며 성장해 온 협동조합 및 지역 운동의 성과는 대안적 시민운동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용-손지연(2017)『오키나와 문학의 이해』역락
 김재용(2018)『현대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역락
 곽형덕(2020)『오키나와 문학 선집』소명출판

-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2015)『유착의 사상-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글항아리
(2020)『시작의 앞-프란츠 파농의 임상』문학과지성사
-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2009)『폭력의 예감』그린비
-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역(2002)『전장의 기억』이산
- 사이토 요시아키, 다나카 히로시 역(2020)『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그물코
-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역(2008)『오키나와 현대사』논형
- 오사와 마리,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구소 역(2012)『생활 속의 협동』푸른나무
- 오세중, 손지연 역(2019)『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소명출판
- 오에 겐자부로, 이애숙 역(2012)『오키나와 노트』삼천리
- 와카츠키 타케유키, 이은선 역(2012)『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그물코
- 요코다 카쓰미, 나일경 역(2004)『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논형
- 진필수(2011)『오키나와 문화론: 미군기지와 촌락공동체』민속원
- 조정민(2017)『오키나와를 읽다-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소명출판
- 존스틴 버첼, 장종익(2003)『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들녘
- 정근식·주은우·김백영(2008)『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논형
- 정근식·전경수·이지원(2008)『경계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논형
- 정진성(2001)『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한울
- 한영혜(2004)『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나남출판
- 相馬健次(2002)『戦後日本生活協同組合論史』日本経済評論社
- 岡本恵徳(2000)『沖縄文学の情景』ニライ社
-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沖縄文学選—日本文学のエッジからの問い』勉誠出版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5일
 1차 수정일 : 2021년 07월 30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소철지옥의 재현과 오키나와 협동조합 및 지역운동의 대응

조경식

‘소철지옥’ 시기에 발표된 『떠도는 류큐인』 및 『멸망해 가는 류큐여인의 수기』는 당시 피폐해진 오키나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붕괴된 오키나와의 공동체를 가감 없이 그리고 있는데,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1970년에 다시 주목받으며 과거 본토-오키나와 사이의 문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반환 이후를 성찰하고자 촉구한다. 특히 작품을 통해 과거 ‘소철지옥’ 사태로 경험한바 있는 공동체의 붕괴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다가올 반환 이후의 새로운 ‘소철지옥’을 대비한 협동조합의 형성과 지역운동의 활성화가 추동된다. 기지문제 및 환경문제를 외면한 국가적 이벤트로서 진행된 오키나와 반환을 새로운 형태의 ‘소철지옥’의 재현으로 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찍이 과거 ‘소철지옥’ 시기를 통해 일본이라는 울타리의 한계를 경험한 시민들은 풀뿌리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출범시킨다. 생활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수평적 구조의 ‘반(班)조직’을 통해 생존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소철지옥’ 시기에 구제의 존재로 대상화 된 오키나와 시민들이 스스로를 구한 높은 성취로 평가된다. 반환 이후 오키나와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해 온 생활협동조합과 지역운동 조직들은 소외된 지역의 좋은 성장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production of Sotetsu Hell and Response to the Okinawa Local Movement

Cho, Kyung-Sik

The “Samayoeu ryuukyujin” and “Memoirs of a Perishing Ryukyu Woman” published during the “Sotetsu Hell” period directly expressed the ravaged Okinawa at that time. These works depict the collapsed community of Okinawa without change. In 1970, before the return of Okinawa, it again drew attention, urging us to look back on the problems between the mainland and Okinawa in the past and reflect on the future after the return. In particular, the work reminds us of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that has been experienced in the past due to the ‘Sotetsu Hell’, thereby driving the formation of cooperatives and revitalization of local movements in preparation for a new ‘Sotetsu Hell’ after the coming return. In a situation where the return of Okinawa, which was conducted as a national event that ignored the base problem and environmental problems, could be seen as a reproduction of a new form of ‘Sotetsu Hell’, citizens who experienced the limits of Japan’s fence through the past ‘Sotetsu Hell’ Based on the grassroots local movement, a living cooperative is launched. Cooperatives have becom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survival through a voluntary and horizontal “HAN-organization”. And this is evaluated as a high achievement that the Okinawan citizens, who were objected to the existence of relief during the “Sotetsu Hell” period, saved themselves. Cooperatives and regional movement organizations that have responded to various problems surrounding the Okinawa region since the return will be a good example of growth in marginalized regions.